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외자계 보험회사 점유율 하락과 원인

-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중국 보험시장이 개방된 이후 10년 간 외자계 보험회사의 수는 전체 보험회사의 40%인 47개로 증가하였으나, 2011년 1/4분기 현재 시장점유율은 2.8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 - 2011년 1/4분기 현재 생명보험은 27개 외자계 보험회사가 3.4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20개 외자계 보험회사가 1.0%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유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3.2%p, 0.1%p 하락함.
 - 2005년 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외자계 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 외자계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사상 최고의 시장점유율(각각 8.8%, 1.3%)을 기록하였으나, 이 후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세가 이어짐.
 - 중국은 WTO 가입조건으로 보험업을 금융업 중 첫 번째로 개방하였으며, 2001년부터 4년 간 실험적 개방을 거쳐 2005년부터 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에서 외자계 보험회사의 진입을 정식으로 허용함.
- 외자계 보험회사의 점유율 하락은 외자계 보험회사의 지분소유 제한, 책임보험 판매 불허 등 시장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임.
 - 2001년 이후 외자계 생명보험회사는 50% 이하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빈번히 일어났고, 이로 인해 수시로 변하는 경영전략에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의 적응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.
 -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 책임보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따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려움.
 - 보험시장 개방으로 설계사, 방카슈랑스, 전화판매 등 새로운 판매채널이 중국보험회사에 도입되면서 중국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이 향상되었고, 외자계 보험회사들이 중국고객보다 본국고객 중심의 경영, 높은 이직률, 좁은 지점망, 외연확장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에 집중한 것이 점유율 하락의 내면적 이유로 분석됨.

(해방일보, 05/31)